



제목	살라미스 해전: 세계의 역사를 바꾼 전쟁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갈라파고스
발행일	2005. 12. 27.
저자	배리 스트라우스 이순호 역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451
ISBN 또는 ISSN	978-8990809124

내용 요약

이 책은 살라미스 해전에 대해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가진 글이다. 고대 작가들의 시각과 달리 페르시아는 결코 퇴폐적이고 침체된 나라가 아니라는 점, 고대 그리스는 단지 제국주의적 민주주의 건설자라는 점, 살라미스 해전이 해전사 발전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살라미스 해전은 너비 1.6킬로미터에 불과한 좁은 해협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3개 대륙의 병사들이 전투를 벌였다는 점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전쟁이었다. 페르시아 함대에는 이란인, 중앙아시아인, 이집트인, 페니키아인, 키프로스인, 팜필리아인, 리디아인, 킬리키아인 등 당시 대부분의 세계의 구성원들이 동참하였다.

1부 “진격”에는 사령관 테미스토클레스, 페르시아의 그리스 정복에 대한 야망, 테르모필라이에서 레오니다스의 최후, 크세르크세스의 외교술과 심리전, 그리스의 영웅과 반역자, 아테네에 입성하는 페르시아 군대, 유랑을 떠나는 아테네 시민들, 야만에 짓밟히는 아크로폴리스, 최후의 결전장으로서 코린트나 살라미스나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2부 “함정”에서는 페르시아의 참모 회의, 테미스토클레스의 위험한 승부수, 살라미스로의 대집결, 이름 없는 민중들의 전투 등을 설명하였다. 3부 “전투”에서는 살라미스 해협의 오전 상황과 오후 상황, 저녁 상황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그리스의 선제공격, 패주하는 페르시아군, 페르시아가 패배한 이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4부 “퇴각”에서는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 퇴각하는 페르시아 군, 불완전한 승리, 승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테미스토클레스, 영광의 그늘 등을 설명하였다.